



세계는 FTA 전쟁 -

세계시장은 이제 FTA로 통한다

10년간 132개 협정체결, 전 세계 확산 - 주요 국제통상 현안으로 新합중연방 가속

관세철폐 통한 교역확대에서 지역 리더십 강화 위한 정치·외교적 목적까지 다양해져 지난 10년 사이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면서 FTA 대세론이 확산되고 있다. 다자무역 체제의 근간인 GATT(관세와 무역에 대한 일반협정) 시절(1948~1994년) 동안 체결된 FTA의 개수는 모두 48개. 그러나 1994년 WTO 출범 이후 10년 동안 FTA는 급증세를 보여 GATT체제 43년 동

안 체결된 협정 건수의 거의 세 배에 달하는 132개가 체결됐다. 최근엔 다자협상인 DDA(도하개발의제) 협상의 부진과 FTA 자체의 매력으로 전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고 있다. 이제 FTA는 중요한 국제통상 현안이 됐으며, 통상각료회의나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시대 흐름에 따라 FTA 추진 배경과 체약국이 기대하는 경제 효과도 질적으로 달라지고 다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관세철폐와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한 교역확대가 주요 목적이었다. 최근엔 경쟁을 통한 기술혁신,

직접투자유치, 경제구조조정 등도 시장접근과 더불어 중요한 목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FTA 체결은 시장확대·유지를 위한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들 수 있다. 이 협정은 1992년 8월 미국·캐나다·멕시코 간에 결성된 경제블록으로, 1994년 1월부터 발효됐다. NAFTA는 폭넓은 시장접근, 서비스와 투자자유화,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절차 등과 같은 무역규범이 포함됨으로써 FTA의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를 잡았다.

개방을 통해 경쟁을 촉발하며,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FTA 체결도 일반화되고 있다. FTA 체약국 간의 개방은 지역 내 기업 간의 경쟁촉진으로 싸고 좋은 제품을 개발하려는 기업의 연구개발 경쟁을 유발시킨다. 그 결과 경쟁력 강화 및 산업기술의 발달을 촉진한다. 호주·뉴질랜드 간 협정(CER),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의 EU와의 FTA 체결, 칠레·캐나다 FTA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 지난 8월 부시 미대통령이 과테말라 등 6개국과의 FTA 조인을 발표하고 있다.

또 몇 년 사이에 지역적 안정, 지역적 리더십 강화 등과 같은 정치·외교적 목적에서 추진되는 FTA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 EC(유럽공동체)가 터키와 체결한 FTA, 미국·이스라엘 FTA가 대표적이다. 지난 2~3년 사이 미국이 요르단·모로코·호주 등과 체결한 FTA는 중동지역의 안정과 대(對)테러 전쟁과 관련이 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이 경쟁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FTA의 이면에는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적 리더십 강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세계의 FTA 추진 속도가 더 빨라지고, 대형화하고 있다. 지난해 20여개의 협정이 체결됐고, 올해는 이보다 많은 수의 협정 체결이 예상된다. 또한 지난 7월 발표된 중국·아세안 FTA, 현재 추진 중인 FTAA(범미주자유무역협정), E U (유 럽 연 합) · MERCOSUR(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간 협정은 NAFTA보다 경제규모가 큰 협정으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전망이다.

FTA가 많은 경제 및 정치·외교적 이익을 가져다 준 것으

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를 계량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체약국 간의 무역실적 분석을 통해 FTA의 이익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대표적인 FTA인 NAFTA의 경우, 미국의 대 멕시코 수출은 162% 증가했고, 멕시코의 대미 수출은 75% 증가했다. 이는 비회원국과의 교역 증가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FTA 체약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확대된 역내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를 위해 투자가 활성화된다. NAFTA의 경우 멕시코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입은 협정

기획특집 1

체결 전의 연평균 40억달러에서 협정체결 이후 연 150억달러로 증가했다.

주요국의 FTA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주의의 선봉으로 볼 수 있는 유럽국가들은 1960년대 초부터 EEC(유럽경제공동체)와 EFTA(유럽자유무역연합)를 결성했고, 이후 EEC가 EC(유럽공동체)로, 다시 EU(유럽연합)로 발전했다. EU는 FTA보다 경제통합 수준이 높은 협정으로, 지난해 5월 동구권 10개국을 신규회원국으로 수용하여 유럽의 명실상부한 경제통합체로 발전했다. EU는 또 남미의 MERCOSUR, 중동의 GCC(걸프만협력회의) 등 비(非)유럽국가와는 FTA를 체결하는 이원화된 전략을 추진 중이다.

북미지역의 미국·캐나다·멕시코는 3국 간 FTA인 NAFTA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FTA 체결을 추진해왔다. 미국의 FTA 정책은 '경쟁적 자유화'라는 대외통상정책 기조와 '공정한 무역환경 달성'이라는 궁극적 통상목표에 근거하고 있다.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양자간·지역 간 무역자유화를 추진

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의 경쟁적 무역자유화를 촉발시킨다는 전략이다. 9·11 테러 이후에는 정치·외교적 목적에 근거한 협정 체결이 활발한 편인데, 미국에 우호적이며 테러와의 전쟁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 및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해야 하는 지역 내 국가와의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는 NAFTA가 제공하는 미국 시장에 대한 특혜적 시장 접근에 안주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미국이 다수 국가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대 미국 특혜가 약화됨에 따라 최근 몇 년 사이 적극적인 FTA 체결로 입장을 변경했다.

멕시코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FTA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 2005년 현재 43개 국가와 협정을 체결했다. 멕시코는 이미 수입의 90% 이상이 FTA 체결국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어 '더 이상 FTA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FTA 모라토리움'을 2003년 11월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입장을 변경해서 우리나라와 SECA(전략적경제보완협정)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동아시아 국가들도 FTA 추

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은 AFTA(동남아 FTA)를 통한 역내 경제통합을 도모하고 있으며, AFTA를 동북아의 한·중·일로 확대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AFTA는 이미 중국과의 협정을 2005년 중반 발효시켰다. 한편, AFTA 회원국 중 비교적 경제 발전이 빠른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은 독자적으로 양자 간 FTA를 추진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 중 FTA 체결에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는 국가는 중국이다. 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와 동아시아 역내 리더십 강화, 자원확보 등을 위해 중국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MERCOSUR, GCC, 뉴질랜드, 칠레, 파키스탄, 인도, 캐나다 등과 FTA를 추진 중이거나 논의 중에 있다.

일본은 싱가포르, 멕시코와의 협정을 발효시켰고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과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